

축 사

참으로 희유하고 희유한 묘법의 가르침이 일대사 인연으로 대한불교 법화종에 나투어 종문을 여니 어느덧 개산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인생칠십고래회’라는 말처럼 사람이 일흔살까지 산다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뜻이지만, 불가(佛家)에서는 원로의 지위에 올라 후학을 제접하고 ‘법화 종지’를 널리 홍포하는 진면목을 갖춘 것이기에 마음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날 대한불교 법화종이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것도 역사적 전등과 법통을 수행정진으로 계승하고 법화종 중흥을 위해 매순간 여념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대승교리인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천태종의 부흥을 이루어 현시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화행자들은 고려 대각국사의 홍법호국의 위대한 사상을 봉체하여 이를 널리 홍포하기에 이르렀고, 오늘 법화종 제19대 총무원장 도성스님의 취임은 ‘일승묘법’의 법륜을 흔들림 없이 굴러가기 위한 종도 대중의 대화합의 장이기도 합니다.

도성스님은 종단을 “신뢰와 화합으로 원융살림을 해나가겠다”고 선포 하였습니다. 이제는 화합하는 종단의 분위기 속에서 종도와 함께 새로운 법화종의 역사를 열어 나가겠다는 원력과 공심이 모든 대중에게 청명하게 전해지고 있다는 희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종무 운영에 있어 8대 기조를 통해 총무원과 교구·말사의 신뢰를 구축하고 종무행정 시스템 개선, 수행종풍 진작에 심혈을 기울여 종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도 큰 의의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도성스님은 전 총무원장 혜륜스님이 지난해 11월 원적하심에 따라 1년여 동안 권한대행 소임을 맡아 오면서 종도 대중들에게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충분히 알려왔고, 이는 제19대 총무원장으

로 선출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또한 창종 70년을 맞아 총본산 안정사 성역화 불사에 매진하는 법화종 종도들의 신심과 원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머지않아 대작불사의 대강이 한국불교 역사에 길이 남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이제 법화종의 미래를 열어갈 도제양성과 승려교육, 선원 설치와 함께 염불원의 개원도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삼보전에 기원 드리며, 종단의 대사회적인 역할에도 큰 기대를 가져 봅니다.

다시 한 번 제19대 총무원장 도성스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법화종 종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불기 2559년 11월 27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합장